

10 장 관건이 되는 문제 : 수행

수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. 기독교를 '삶의 길'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곧 수행이며 기독교의 길을 살아내는 것이다. (복수형)

왜 개신교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수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까

- 1) 종교개혁 : 신앙과 행위의 대조구도 > 행위 = 수행이라는 오류
공적을 쌓으려 함 vs. 하나님께 마음/주의를 보이려 함
- 2) 현대 서양기독교 : 신앙 = 특정한 '믿음'의 조항들 (P.46)
실천에 대해 관심이 없음 vs 수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> 신앙과 수행은 반대가 아니다.
- 3) 하나님의 실재에 대한 불확실성
인간의 윤리 = 착한 사람/친절하라 > 세상에서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으로 이해 vs.
역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모두와 관계를 맺는 것(p. 287) > 기독교인의 삶이 관계를 맺는 것이며 변화하는 것이다.

수행이란 하나님께 마음/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개인적인 형태와 집단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뜻하며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다.

• 수행의 목적

- 1)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(가장 핵심)
인간관계와도 같이 지속적인 관심. 자기형성후에 관계형성이 아닌 관계를 통해 우리자신이 됨.
결론적으로 우리를 형성하는 작업이다.
- 2)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
정체성(나는 누구인가) > 가족/친구/학교/직업/교회/문화의 영향
세상을 정체성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으로 변화(지속적인 과정)
기독교 전통전체가 거룩한 것에 대한 하나의 은유이며 또한 그 성례전으로서 그 전통안에서 살아간다는 것(p.292)
- 3) 기독교인의 성품을 형성하는 일
False self > 더 큰 자아로 변화. 문화가 만들어준 정체성 > 대안적(그리스도안에서) 정체성
- 4) 양육의 과정
- 5) 함께 아파하는 마음(compassion)과 정의
수행의 목적은 삶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며 open heart(새로운 정체성) 즉,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게 되며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것이 되어 연민과 정의의 삶 즉,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.

- 수행 : 기독교인의 형성과 양육
 - 1) 교회에 속한 교인이 되는 것
양육 – 화나게 하거나 따분하게 하는 교회는 배제. 예배 – 기존체제를 전복하는 작업.
교육 – 어린이와 성인의 교육 > 집단적 자비와 정의 실천기회
 - 2) 기도
 - 3) 명상
 - 4) 묵상
 - 5) 매일훈련
 - 6) 일상생활
 - 7) 기독교인의 친교

-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는 일
하나님을 사랑함 = 하나님의 열정에 참여함 = 세상을 구원함
자선/자비/사회개혁 (소극적인 방식) > 정의 = 사회변혁(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부족했던 것)
사회체제가 사람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인식하고, 또한 그 체제에 의해 희생을 당하고 약자가 된
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들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점 (p.307)
의식화의 예: 1) 다른 계층의 수입수준을 나누어 봄 2) 직접체험/봉사/자매결연 3) 공립학교 지원금
4) 의료보험 5) 장애인문제 6) 빈곤계층 식비지원
실천 : 헌금의 50% -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 (고통을 만들어내는 조건 자체를
변화시키려 노력하는 단체) < 퀴트 만드는 여인들의 마음

- 결론
*기독교인의 수행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며, 친절하게 되는 것이며,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.
(p. 312)*

- 생각해 보기
 - 1) '정의를 실천'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란?(구체적으로)
 - 2) '교회출석 vs. 개인수양' 기독교인으로 사는 데 다른 점이 있는가?